

인촌 · 고하 미공개 서예 ‘친정’으로

동아일보를 설립한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 선생과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고하 송진우(古下 宋鎭禹) 선생의 미공개 서예 작품이 최근 ‘친정’으로 돌아왔다.

본사는 3월26일 경매 업체인 ‘서울 옥션’이 주최한 미술품 경매에서 익명의 소장인이 내놓은 인촌 선생의 ‘지상선연’(地上仙緣)과 고하 선생의 ‘춘만건곤복만가’(春滿乾坤福滿家·작품 중 일부는 약자로 기록) 등 두 점의 서예 작품을 구매해 일민미술관에 보관 중이다.

인촌 선생의 작품은 ‘지상에서 맺은 신선의 인연’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 고하 선생의 글귀는 ‘봄은 천지에 가득하고 복은 가정에 가득하여라’라는 뜻이다. 인촌 선생은 작품을 쓴 연도를 표기하지 않았고, 고하 선생은 갑신중춘(甲申仲春)이라고 적어 이 글을 1944년 어느 봄 날에 썼다고 기록했다.

소장인은 동아일보를 일군 두 분의 생전 인연을 알았는 지 두 작품을 액자 한 개에 보관해오다 경매에 출품했다고 서울옥션 측은 설명했다.

본사는 공정한 경매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 옥션 측에 본사 차원의 경매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대신 편집국 행정팀 손용선 과장이 ‘자연인’ 자격으로 참여토록 했다. 손 과장은 “경매는 난생 처음인데 참가한 사람들이 작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경매 후에도 서울 옥션 측은 내가 동아일보 직원인지 아직 모른다”고 전했다. 경매 수수료를 포함한 낙찰가는 1000만 원 안팎이다.

